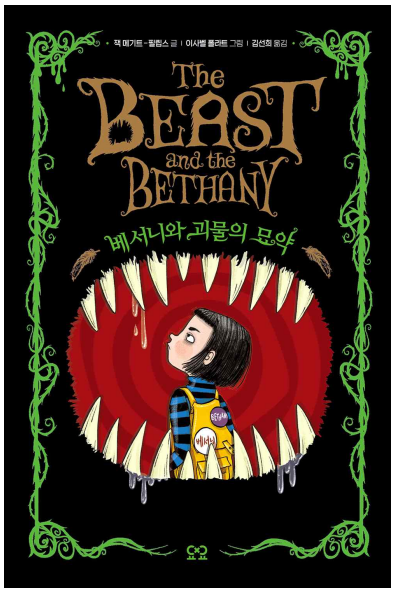
<독서 활동지>

베서니와 괴물의 묘약



잭 메기트-필립스 글 | 이사벨 폴라트 그림 | 김선희 옮김 | 268쪽 | 요요

□ **줄거리**

에벤에셀 트위저는 스무 살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토요일이면 512번째 생일을 맞는다. 에벤에셀이 이처럼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15층 대저택 다락방에 사는 괴물이 요구하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늙지 않는 마법의 약'에 있다. 평화롭던 어느 날, 괴물은 에벤에셀에게 '어린아이'가 먹고 싶다고 말한다. 그동안 온갖 음식을 갖다 바쳤지만 살아 있는 아이를 먹겠다고 한 건 처음이다. 애써 보육원에서 말썽쟁이 여자아이 베서니를 데려왔는데, 괴물은 베서니가 너무 말랐다며 사흘 동안 포동포동하게 살찌우라고 명령한다. 에벤에셀은 사흘 동안 베서니를 살찌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어느새 둘 사이에는 우정이 싹트게 되고, 에벤에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늙어 가는데……. 과연 베서니와 에벤에셀 그리고 괴물의 운명은?

□ **독서 포인트**

1.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천방지축 베서니가 괴물의 악행을 보며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 지난 511년 동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괴물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 왔던 에벤에셀이 동물과 사람에게 처음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 등 주인공의 변화에 주목해요.
2. 다른 듯 닮은 성격의 베서니와 에벤에셀, 두 사람이 우정을 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우정에 대해 생각해요.
3. 괴물의 악행을 통해 표현되는 인간 내면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 생각해요. 또 그러한 괴물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베서니의 모습에서 참된 용기를 느껴요.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①> 읽기 전 활동

이야기 상상하기

□ 책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소개를 읽고, 그림을 보며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해 봐요.

<등장인물>

베서니 키 작고 삐쩍 마른 여자아이. 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잘하며 장난이 심하다. 어느 날, 괴물이 사는 대저택에 '먹잇감'으로 던져졌다. 과연 괴물의 특식이 될 것인가?

에벤에셀 트위저 스무 살 정도 되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511세. 괴물이 원하는 음식을 구해다 주고, 그 대가로 받는 '늙지 않는 마법의 약'을 마시며 간신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베서니를 괴물에게 데려간 장본인!

괴물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세상 유일의 진귀한 종. 진주 목걸이, 벌집, 처칠 동상 등 못 먹는 게 없다. 한 번 먹은 건 또다시 먹지 않아, 늘 새로운 메뉴를 주문한다. 급기야 최근에는 '살아 있는 어린아이'가 먹고 싶어짐!

<그림> **<질문>**

1. 커튼이 열리자 놀란 표정의 베서니! 무엇을 본 걸까?

2. 낙서된 액자를 보고 좌절한 에벤에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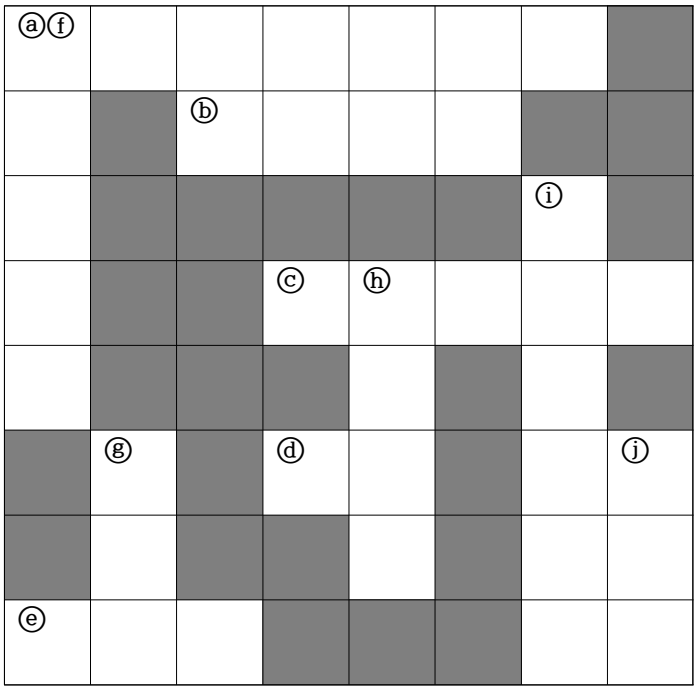
3. 거울 속 얼굴을 보고 기겁하는 에벤에셀! 무슨 이유일까?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②> 읽기 후 활동

가로세로 낱말퀴즈

□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정답을 채워 봐요.



<가로 문제>

ⓐ. 괴물이 주는 묘약으로 511년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 ○○○'이다.

ⓑ. 에벤에셀이 가장 아끼는 초상화는?

ⓒ. 돈을 밝히는 장사꾼이지만 새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 등장인물은? (힌트: ○ 가게 ○○)

ⓓ. 피즐위크 원장이 운영하는 보육원의 이름은 '○○다운 소년과 숙녀다운 소녀를 위한 학교'이다.

ⓔ. 괴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일한 물건은?

<세로 문제>

ⓕ. 보육원 원장이 에벤에셀에게 맨 처음으로 소개한 아이는?

ⓖ. 간지러운 느낌. 에벤에셀이 근위병을 웃기기 위해 한 행동은?

ⓗ. 베서니가 매일 잠들기 전에 보는,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진은?

ⓘ. 괴물이 잡아먹은 앵무새로, 세상에 스무 마리밖에 남지 않은 새는 '윈틀로리언 ○○○ 가슴 ○○○'이다.

ⓙ. 괴물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주인공 여자아이의 이름은?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②> 읽기 후 활동 – **정답**

가로세로 낱말퀴즈

□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정답을 채워 봐요.

에	벤	에	셀	트	위	저	
이		골	든	보	이		
미						자	
클			새	가	게	주	인
루				족		색	
	간		신	사		앵	베
	지			진		무	서
트	럼	펫				새	니

<가로 문제>

ⓐ. 괴물이 주는 묘약으로 511년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 ○○○'이다. 에벤에셀 트위저 (p.7)

ⓑ. 에벤에셀이 가장 아끼는 초상화는? 골든 보이 (p.75)

ⓒ. 돈을 밝히는 장사꾼이지만 새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 등장인물은? (힌트: ○ 가게 ○○) 새 가게 주인 (p.259)

ⓓ. 피즐위크 원장이 운영하는 보육원의 이름은 '○○다운 소년과 숙녀다운 소녀를 위한 학교'이다. 신사 (p.41)

ⓔ. 괴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일한 물건은? 트럼펫 (p.25)

<세로 문제>

ⓕ. 보육원 원장이 에벤에셀에게 맨 처음으로 소개한 아이는? 에이미 클루 (p.48)

ⓖ. 간지러운 느낌. 에벤에셀이 근위병을 웃기기 위해 한 행동은? 간지럼 (p.149)

ⓗ. 베서니가 매일 잠들기 전에 보는,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진은? 가족 사진 (p.130)

ⓘ. 괴물이 잡아먹은 앵무새로, 세상에 스무 마리밖에 남지 않은 새는 '윈틀로리언 ○○○ 가슴 ○○○'이다. 자주색 앵무새 (p.167)

ⓙ. 괴물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주인공 여자아이의 이름은? 베서니 (p.57)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③> 읽기 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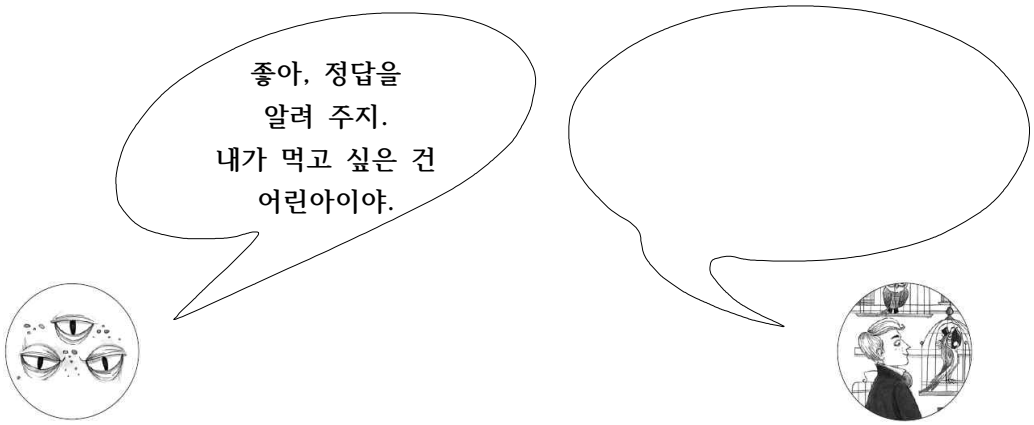
내가 주인공이라면?

□ 내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괴물과 대화를 나눠 봐요.

에벤에셀은 괴물이 뭘 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트럼펫과 푸들, 둘 다 힌트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좋아, 정답을 알려 주지. 내가 먹고 싶은 건 어린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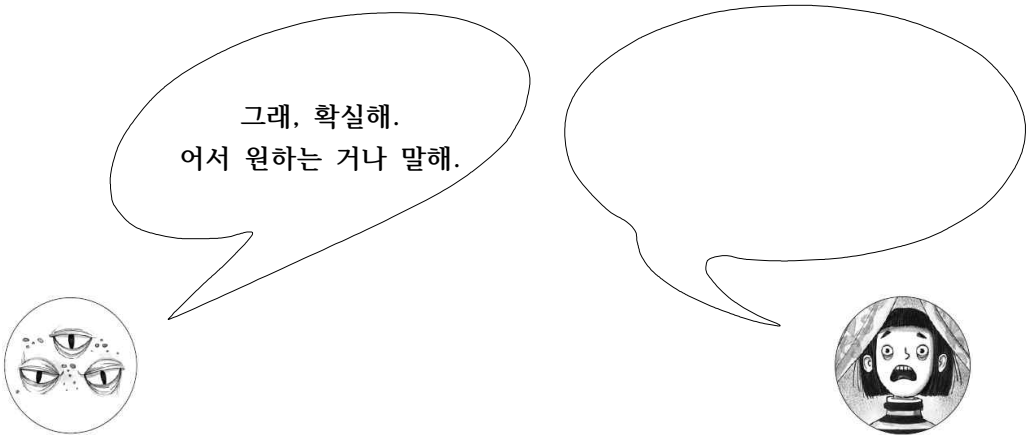
괴물의 얼굴에 서서히 유쾌한 웃음이 번졌다. 괴물은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에벤에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p.25~26)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말로 줄 수 있어? 진짜로 뭐든지 가능해?"

"그래, 확실해. 어서 원하는 거나 말해."

베서니는 잠자코 멈추어 서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눈을 감더니 원하는 것을 말했다. (p.104)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④> 읽기 후 활동

추억이 방울방울

□ 베서니와 에벤에셀은 일주일 동안 많은 사건을 겪어요. 두 주인공이 만나서 벌어진 사건들을 떠올리며, 당시 주인공의 속마음을 상상해 봐요.

보육원에서 대저택으로 가는 길

베서니: 보육원을 떠나게 되서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에벤에셀은 왜 나를 선택한 걸까? 떨리고 걱정돼.

에벤에셀:

함께 만화책을 읽는 둘

베서니:

에벤에셀:

입양한 이유를 알게 된 베서니

베서니:

에벤에셀:

괴물을 무찌르고 평화로운 둘

베서니:

에벤에셀: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⑤> 읽기 후 활동

괴물 공개 수배!

□ **이야기 속 괴물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고 특징을 적어 봐요.**

★☆괴물 조심하세요☆★

●별명:

●닮은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주의할 점:

●성격

1.

2.

3.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

<독서 활동지⑥> 읽기 후 활동

뒷이야기 상상하기

□ 내가 작가가 되어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봐요.

"두 사람을 잡아서 콘서트 무대 뒤로 데려가야겠어."

클로뎃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눈동자에는 싸늘한 기운이 나타났다.

"베서니가 보고 싶어서 잠시도 기다릴 수가 없군."

"클로뎃, 괜찮니?"

클로뎃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목소리와 싸늘한 눈빛이 사라졌다.

"아, 이제 괜찮아요. 잠깐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 이제 가 봐야 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은 클로뎃이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었다. 자주색 깃털의 클로뎃이 까만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잠깐 문이 열린 사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를 시작한 것이다. 가게 주인이 연주한 '족제비가 톡 튀어나왔네'보다 훨씬 더 끔찍한 노래였다.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현하